

학생들이 걸리기 쉬운 감염병은?

질병관리본부에서는 학령기(7-18세)에 주의해야 할
4대 감염병으로 **수두, 유행성이하선염, 인플루엔자,
성홍열**을 꼽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.

학령기 4대 감염병



수두



유행성이하선염



인플루엔자



성홍열



4대 감염병의 공통점

: 모두 직접 접촉이나 호흡기 전파로 감염



수두

(Varicella)



유행성이하선염

(볼거리, Mumps)



인플루엔자

(Influenza)



성홍열

(Scarlet fever)

이 때 주요 감염 매개체인 ‘손’ 위생만 철저히 지켜도
학생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손에는
2.5㎢ 면적당 평균 3,700 마리,
약 150종의 세균이 서식하고 있습니다.

이는 가정집 **화장실 변기**보다 **약 10배 이상** 많은 수치이며,
스마트폰에는 **손보다 약 7배나** 많은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.

우리 주변에 서식하고 있는 세균들



가정집 화장실 변기 2.5㎢당
50~300 마리



우리 손 2.5㎢당
3,700 마리



스마트폰 2.5㎢당
25,000 마리



World Health Organization

세계보건기구(WHO)에서도 감염병을 예방을 위한
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으로
'손씻기'와 '손소독'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



손씻기+손소독의 ‘완벽한 손소독법’은



손의 세균과 바이러스를
99% 제거합니다.



손씻기만 할 때 보다 손소독까지 하면
감염병 발생률이 약 70% 감소합니다.



감염병으로 인한 학생 결석률을
약 43% 줄일 수 있습니다.

출처: *Jennifer L. Morton et al. Healthy Hands: Use of Alcohol Gel as an Adjunct to Handwashing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. First Published June 1, 2004

**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(CDC), Guideline for Hand Hygiene in Health-Care Settings October 25, 2002 / 51(RR16):1-44